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hyness and Emotion Regulation

1차원고접수: 2025.10.10. 수정원고접수: 2025.11.26. 최종재제결정: 2025.12.22.

유숙희¹ · 신나리²

¹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²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Yu, Sookhee¹

Shin, Nary²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²Dept. of Child Development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줍음은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350명이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모형 검증과 팬텀변수 분석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침해적, 응석/허용적 그리고 걱정/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침해적 양육태도와 응석/허용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의 수줍음 중 갈등 수줍음은 정서조절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무관심 수준은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유아의 정서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아의 수줍음,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정서조절, 양육태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hyness in young children influences emotion regulation and explores whether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mediates this association. Shyness was classified into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while overprotective parenting consisted of intrusiveness, indulgence/permissiveness, and worry/protection. Participants were 350 mothers of 4- and 5-year-old young childre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3.0 and AMOS 21.0 was conducted, and indirect effects were verified using phantom variabl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maternal intrusiveness, indulgence/permissiveness, and worry/protection. Among these dimensions, intrusiveness and indulgence/permissiveness negatively predicted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confirming their mediating roles. Additionally, conflicted shyness directly reduced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whereas social disinteres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rect effect. These findings elucidate the structural pathways linking young children's shyness and maternal parenting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aimed at fostering emotional development.

Keywords *young children's shyness,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ttitude*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5)과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신나리 (Shin, Nary)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Dept. of Child Development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binah2009@cbn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및 다양한 인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해 나간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은 개인의 정서와 사회적 능력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유재용, 2015). 특히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구분하고, 충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 규범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은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의 기초에는 정서조절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정서조절은 개인이 상황에 적합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켜 사회적 관계에서 원만함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석만, 이지영, 2006; 권연희, 2012; 박가현, 2017; 이선경, 2014; 최미숙, 김미숙, 2005). 정서조절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Cole, Martin & Dennis, 2004). 정서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안정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자극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주의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충동성, 분노 조절 실패, 적대적 태도 등은 모두 정서조절 미숙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결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김근영, 윤진, 1995; 박진성, 2012; Kochanska & Aksan, 1995;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Selman & Demorest, 1984).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채경진, 유연옥, 2015).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노출, 도시화와 안전의 문제로 인해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다(안의정, 2015; 정은미, 김소향, 2016). 이러한 변화는 정서적 자기 통제 능력의 부족, 또래 관계에서의 기술 결핍, 부적응적 행동의 증가로 이어져 유아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의정, 2015; 이연실, 2011). 결국 정서조절의 미숙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 더 나아가 성인기 이후의 정신 건강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조절 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이선경, 2014), 특히 가정은 유아가 정서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다. 가정 내 상호작용은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기초가 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이강이, 2007; 장수현, 2017; 최정은, 이소연, 2017). 이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다. 어머니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반대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하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이다. 과보호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지나친 보호와 간섭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을 제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Levy, 1943; Parker, 1983; Symonds, 1949).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도록 하며, 연령에 맞는 발달적 과업을 성취할 기회를 축소시킨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출산율 감소와 부모의 양육 관심 증가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점차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Buss, Zhou & Trainer, 2021; McShane & Hastings, 2009).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기 초기에 성인의 세심한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한계 설정이 부재하고 실패를 경험할 기회가 차단될 경우, 유아는 정서적 각성을 조절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정익중, 2012; Eisenberg, Taylor, Widaman, & Spinrad, 2015). 어머니가 유아를 부정적 경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경험하는 안전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또래 배제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을 즉각적으로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저하, 정서적 미성숙,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손수아, 2011; Eisenberg et al., 2015; Erikson, 1963). 결과적으로 스스로 정서를 다루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자녀는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진다(Tiede, 2020).

저출산 및 과열된 교육 경쟁을 배경으로 부모의 투자와 통제 성향이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증가하고 있다(위지희, 채규만, 2015).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적응 능력 문제와 정서조절 기능 약화, 학업 부적응 등 많은 문제점들이 보고되며(신민진, 하은혜, 2010; 이선영, 2012; 이아정, 2016),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만을 독립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선영, 2012). 또한 양육태도는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외국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했을 경우 한국형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한국 문화에 맞춘 하위 요인의 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원영, 1988; 정은영, 장성숙, 2008; Thomasgard & Metz, 1993).

일반적으로 해외의 과보호 관련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개 통제적이고 비애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타 문화권에 비해 애정적이면

서도 더 통제적이고, 학업적 성취를 중시하는 독특한 과보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연, 정경미, 2014; 이원영, 1998). 예를 들어 서구 문화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어머니가 노크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잠을 자고 오는 캠프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행동이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포함된다(정영선, 박경자, 2021; Levy, 1966; Wood, 2006).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영선과 박경자(2021)는 우리나라 가정 맥락에 적합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자녀를 지나치게 어리다고 간주하여 자율적 발달 기회를 제한하는 침해적 양육태도, 행동 지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 응석/허용적 양육태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 유아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보호하여 발달에 적합하지 않게 통제하는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로 개념화한 바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응적이거나 허용적이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양육태도가 혼재된 과보호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포착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Thomasgard, Metz, Edelbrock, & Shonkoff, 1995).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개인적 성향, 자녀의 성향, 가족 체계, 사회적 지지 기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조운영, 2014), 이 중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유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 두려움, 불안, 내향적 성격 등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태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8; 소연주, 도현심, 2001; Coplan et al., 2009). 특히 자녀의 수줍음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협적인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태도를 강화시키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된다(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3). 구체적으로, 또래에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해 사회적 상황을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또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자녀의 어머니는 따돌림이나 발달 지연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불필요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과보호적 성향이 심화된다는 선행연구(박유나, 도현심, 2006; Kiel & Buss, 2011)와 맥을 같이하며, 수줍음이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서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함께 신경증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Coplan, Reichel과 Rowan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수줍음 기질과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Zimbardo, Pilkonis와 Norwood(1975)는 수줍음이 내향적인 성향으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겸손 혹은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Kagan과 Arcus(1994)는 수줍음을 사회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발생한 억제된 기질로 보았다. Coplan, Prakash, O'Neil과 Armer(2004)는 수줍음을 낯선 사람이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을 회피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유아의 수줍음을 크게 갈등 수줍음(conflicted shyness)과 사회적 무관심(social disinterest)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갈등 수줍음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Coplan et al., 2004).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 자체가 낮거나 결여되어 있어, 상호작용을 회피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립된 상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특성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위축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호작용에 대한 내적 동기와 정서적 갈등의 유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갈등 수줍음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와 두려움 사이의 내적 갈등 속에서 접근을 시도하지만 망설이거나 주저하며 관망하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 유아는 이러한 갈등 없이 혼자 있기를 선호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수줍음을 주로 사

회적 두려움과 불안에 기초해 발생하는 갈등 수줍음을 단일 개념으로 다루어(김수경, 2008,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 정해정, 2011), 수줍음 유아의 기저에 따라 달라지는 적응을 탐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유아기의 수줍음은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지표들과 관련되는바(이영신, 2016), 수줍음을 내적 동기가 상이한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의 다차원적 구조로 접근하여, 이러한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수줍음으로 인해 유아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또래나 성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원하면서도 사회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이를 억제하는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하거나(Coplan, Ooi, Xiao, & Rose-Krasnor, 2018), 사회적 맥락에서 경계심이 강하고 소극적일 수 있다(Coplan, Ooi, Rose-Krasnor, & Nocita, 2014). 두 경우 모두 유아는 스트레스를 빈번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수줍음 기질의 유아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다수 겪게 되면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Hipson, Coplan과 Séguin(2019)은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수줍음 유아의 경우 강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서조절을 숙달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기의 적극적인 정서조절 경험, 수줍음에 따른 행동 억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며, 나아가 아동기 사회적 역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한 Penela, Walker, Degnan, Fox와 Henderson의 연구(2015)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수줍음이라는 기질적 특성은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며 반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조절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yson, 2004), 수줍음을 유아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

계, 더 나아가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구나 수줍음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김성희, 정옥분, 2011; 신민진, 하은혜, 2010; 양명재, 방희정, 2014; 이태완, 이지연, 김은석, 2018),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의 수줍음을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구분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 특성을 반영하여,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학문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천적 교육 현장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의 수줍음(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줍음(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는 유아의 수줍음(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관리전문기관인 Entrust Survey의 패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2018년생과 2019년생 만 4, 5세 유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패널은 확률표집이 아닌 비확률표집에 기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및 자녀 수를 할당하여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중 유아의 성별과 연령 비율은 남아와 여아, 만 4세와 5세가 각 50.0%씩 동수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형제 유무도 외동아 46.3%, 형제아 53.7%의 비율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출생순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외동 46.3%, 첫째 21.7%, 둘째 29.1%, 셋째 이상 2.9%로 외동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09세($SD = 4.93$)로, 30세 이상 ~ 40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22세($SD = 5.10$)로, 40세 이상 ~ 50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수줍음

유아의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 등의 연구(2004)에서 사용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CSPS)를 김필연(2010)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표 1. 일반적 배경

(N = 350)

구분		n(%)
유아	성별	남 175(50.0)
		여 175(50.0)
	연령	2018년생 (만 5세)
		2019년생 (만 4세)
	형제유무	외동아 162(46.3)
		형제아 - 첫째 76(21.7)
		형제아 - 둘째 102(29.1)
		형제아 - 셋째 이상 10(2.9)
어머니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13(3.7)
		30세 이상 ~ 40세 미만 205(58.6)
		40세 이상 132(37.7)
		M(SD) 38.09(4.93)
	학력	고졸 이하 22(6.3)
		2, 3년제 졸업 61(17.4)
		4년제 졸업 239(68.3)
		대학원 이상 28(8.0)
	직업	전업주부/기타 111(31.7)
		사무직 177(50.6)
		관리직/전문직 37(10.6)
		판매서비스직/생산근로/단순노무직 25(7.1)
아버지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6(1.7)
		30세 이상 ~ 40세 미만 152(43.4)
		40세 이상 192(54.9)
		M(SD) 40.22(5.10)
	학력	고졸 이하 29(8.3)
		2, 3년제 졸업 46(13.1)
		4년제 졸업 230(65.7)
		대학원 이상 45(12.9)
	직업	전업주부/기타 3(0.9)
		사무직 216(61.7)
		관리직/전문직 65(18.6)
		판매서비스직/생산근로/단순노무직 66(18.8)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11(3.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3(12.3)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6(18.9)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0(20.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8(16.6)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3(12.2)
		800만원 이상 59(16.9)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수줍음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모용 질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와 함께 어울려 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등의 갈등 수줍음 7문항, ‘내 아이는 중

종 혼자 노는 것에 대해 만족해한다’ 등의 사회적 무관심 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유

아의 수줍음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 앞서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원 도구의 하위 요인과 동일하게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값도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줍음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갈등 수줍음 .89, 사회적 무관심 .69로 산출되어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2)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영선과 박경자(2021)가 개발해 타당화한 ‘과보호 양육적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침해 8문항, 응석/허용 4문항, 걱정/보호 6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침해의 경우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한다’, 응석/허용은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 걱정/보호는 ‘아이가 나와 떨어질 때 불안해 할까봐 걱정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5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침해 .82, 응석/허용 .78, 걱정/보호 .66으로 산출되어 걱정/보호의 항목 간 일관성이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3)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 (1998)가 제작한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김지윤, 도현심과 김민정(200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서의 유연성 및 표현의 적절성 등 정서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불안정/부정적 정서 15문항, 조절적 정서 9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를 대표하는 문항으로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조절적 정서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등이 해당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루어졌다. 두 요인 또는 단일 요인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원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부정적 정서 15문항을 역채점하여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2024년 7월 18일에 연구를 승인받았다(IRB No. CBNU-2024-A-019). IRB 승인 후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이해도 및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C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10분 ~ 15분 정도로 예상되어 설문조사 실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유아의 정서조절 문항 중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문장을 뒷부분에 배치하여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즉,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하거나 정신없이 놀지 않는다. 혹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다 등)’으로 수정하였고, 이처럼 이해가 어려운 2개의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이메일을 통해 연구 설명서와 연구 동의서를 전달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웹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 참여 과정에서 적정 응답시간 검토, 불성실한 응답 시 설문 자료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해, 수집 완료된 자료 350부는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아 설문 조사에 참여한 350명의 자료 전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내적합치도, 상관관계 등을 살펴 보았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별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수줍음,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 유아 정서조절 간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

저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47에서 .78의 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80에서 .29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이는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일 경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시한 기준(West, Finch, & Curran, 1995)에 부합하는 수치로,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유아 수줍음의 경우 갈등 수줍음은 2.45($SD = .83$), 사회적 무관심은 2.85($SD = .70$)로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경우 응석/허용 1.83($SD = .63$), 침해 2.48($SD = .53$), 걱정/보호 2.65($SD = .49$) 순으로 나타나, 응석/허용 수준이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은 2.99($SD = .38$)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이 이론적으로 예측된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갈등 수줍음은 사회적 무관심($r = .50, p < .001$), 침해($r = .32, p < .001$), 응석/허용($r = .45, p < .001$), 걱정/보호($r = .32,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과 위축을 많이 나타낼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갈등 수줍음은 유아의 정서조

표 2. 각 변인의 기술적 특성 및 상관관계

($N = 35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유아 수줍음	① 갈등 수줍음	1					
	② 사회적 무관심	.50***	1				
어머니 과보호적 양육태도	③ 침해	.32***	.27***	1			
	④ 응석/허용	.45***	.31***	.28***	1		
	⑤ 걱정/보호	.32***	.31***	.53***	.36***	1	
⑥ 유아 정서조절		-.62***	-.38***	-.38***	-.56***	-.29***	1
<i>M</i>		2.45	2.85	2.48	1.83	2.65	2.99
<i>SD</i>		.83	.70	.53	.63	.49	.38
왜도		2.24	-.08	-.27	.78	-.47	-.17
첨도		-.80	.01	.11	.12	.29	-.30

주. 유아 수줍음은 5점 척도, 어머니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4점 척도, 유아 정서조절은 4점 척도임.

*** $p < .001$.

절($r = -.62,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높은 수준의 수줍음이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와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무관심 역시 침해($r = .27, p < .001$), 응석/허용($r = .31, p < .001$), 걱정/보호($r = .31,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정서조절($r = -.38,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침해는 응석/허용($r = .28, p < .001$), 걱정/보호($r = .53,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정서조절($r = -.38,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응석/허용은 걱정/보호($r = .36,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정서조절($r = -.56,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걱정/보호는 유아의 정서조절($r = -.29,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 양육태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으며, 세 하위 요인 모두 유아의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1)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가 검증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는 $\chi^2/df = 2.35(p = .31)$, TLI = .99, CFI = .99, GFI = .99, SRMR = .02, RMSEA = .02로 나타나, 수용 준거와 비교 시, 모든 적합도 지수를 만족하여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경로별 계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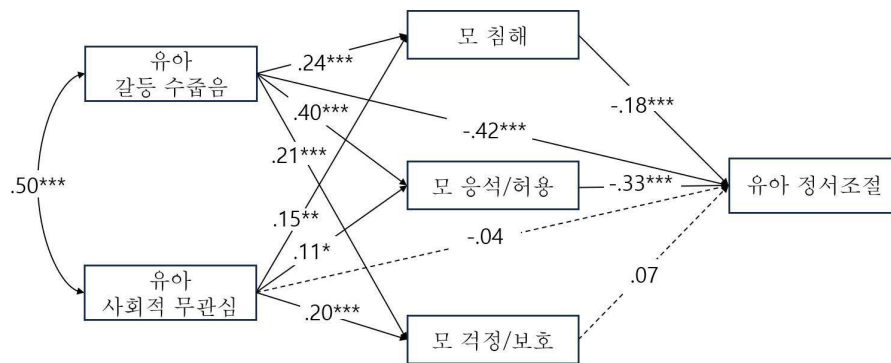
(N = 350)

구분	$\chi^2(df)$	p	TLI	CFI	GFI	SRMR	RMSEA
연구모형	2.35(2)	.31	.99	.99	.99	.02	.02
수용 준거	-	> .05	> .90	> .90	> .90	< .05	< .08

표 4. 경로별 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침해	.15	.24***	.04	4.07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응석/허용	.30	.40***	.04	7.25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걱정/보호	.13	.21***	.03	3.72
유아 갈등 수줍음	→	유아 정서조절	-.19	-.42***	.02	-8.88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침해	.11	.15**	.04	2.52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응석/허용	.10	.11*	.05	1.95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걱정/보호	.14	.20***	.04	3.52
유아 사회적 무관심	→	유아 정서조절	-.02	-.04	.02	-.97
모 침해	→	유아 정서조절	-.13	-.18***	.03	-4.04
모 응석/허용	→	유아 정서조절	-.20	-.33***	.03	-7.60
모 걱정/보호	→	유아 정서조절	.05	.07	.04	1.50
형제유무	→	모 침해	.13	.12*	.05	2.42
형제유무	→	모 응석/허용	-.03	-.02	.06	-.43
형제유무	→	모 걱정/보호	.05	.05	.05	.92
형제유무	→	유아 정서조절	-.01	-.01	.03	-.17
유아 갈등 수줍음	↔	유아 사회적 무관심	.29	.50***	.04	8.41

* $p < .05$. ** $p < .01$. *** $p < .001$.



- 주1. 모든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주2.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주3. 형제유무(외동아 = 1, 형제아 = 0)가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모형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유아의 수줍음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와 같다. 먼저, 유아의 갈등 수준은 어머니의 침해($\beta = .24, p < .001$), 응석/허용($\beta = .40, p < .001$), 걱정/보호($\beta = .21, p < .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의 정서조절($\beta = -.42, p < .001$)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침해($\beta = .15, p < .01$), 응석/허용($\beta = .11, p < .05$), 걱정/보호($\beta = .20,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 효과($\beta = -.04, p = .3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침해적 양육태도($\beta = -.18, p < .001$)와 응석/허용적 양육태도($\beta = -.33, p < .001$)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걱정/보호적 양육태도($\beta = .07, p = .13$)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갈등 수준과 사회적 무관심은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유아의 수줍음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침해적 태도와 응석/허용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갈등 수준과 사회적 무관심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

절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이나 일관성 없는 허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율성과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함을 보여주며,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갈등 수준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로 가는 전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6, p < .01$). 사회적 무관심 역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로 가는 전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05, p < .05$). 단, 독립변수나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인 구조모형을 검증할 때 일반적인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경로에 해당하는 분석값이 통합되어 제시되므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과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우종필, 201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개별 변수 간의 효과를 분해하여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아의 갈등 수

표 5. 전체 및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i>B</i>	<i>S.E.</i>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과보호	→	유아 정서조절	-.16**	.03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과보호	→	유아 정서조절	-.05*	.03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침해	→	유아 정서조절	-.02**	.01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응석/허용	→	유아 정서조절	-.06**	.01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걱정/보호	→	유아 정서조절	.01	.01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침해	→	유아 정서조절	-.01*	.01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응석/허용	→	유아 정서조절	-.02*	.01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걱정/보호	→	유아 정서조절	.01	.01	

주. 모 과보호는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가 모두 포함되었음.

* $p < .05$. ** $p < .01$.

줍음이 침해를 거쳐 정서조절로 가는 경로의 계수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4의 하한값과 -.01의 상한값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석/허용 또한 -.09의 하한값과 -.04의 상한값을 나타내며,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아의 갈등 수줍음은 어머니의 침해와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은 침해를 거쳐 정서조절로 가는 경로가 -.03의 하한값과 -.01의 상한값이 나타났고, 응석/허용을 거친 경로는 -.05의 하한값과 -.01의 상한값으로, 두 경로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갈등 수줍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무관심은 어머니의 침해와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개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연구모형 검증 시 유의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걱정/보호는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유아의 정서조절로 이어지는 두 경로 모두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하한값이 -.01, 상한값이 .02로 나타나 0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경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걱정/보호의 개별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침해와 응석/허용은 유아의 수줍음과 정서조절을 매개하는 주요 변인이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의 수줍음이 크게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유아의 수줍음이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로 대표되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태도에는 정적 영향을, 정서조절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과 두려움을 쉽게 경험하는 수줍음 기질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박성연과 케네스 루빈(2008), Chronis-Tuscano, Danko, Rubin, Coplan과 Novick(2018), Coplan 등(2009), Kiel과 Buss(20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

육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배성아, 최혜정(2021)의 연구,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수행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이태완 등의 연구(2018)와도 맥을 같이한다.

종합해보면,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수줍음 기질의 유아는, 과도한 개입이나 허용적 반응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일상적 상호작용 환경을 보완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직접 시도해 보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행동과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권연희, 2013). 또한, 자녀의 어려움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대처 기회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의존성과 정서적 수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능력 및 정서발달을 제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Coplan et al., 2018).

둘째, 유아의 갈등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이르는 직접 및 간접 경로가 모두 유효한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정서조절에 이르는 간접 경로만 유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수줍음이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기반한 사회적 위축의 하위 유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차별적 영향을 지닌다는 Coplan 등의 연구(2004) 결과와 부합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수줍음의 기질이 높은 유아는 새로운 환경이나 사회적 도전에서 긴장과 억제된 행동을 보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의 기질이 높은 유아는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특정 자극에 감정적으로 거의 반응하지 않고 혼자 놀이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 수줍음을 가진 유아가 보이는 긴장, 억제된 행동,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과보호 양육과 관련된 경험이 누적될수록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무관심을 보

이는 유아는 감정적인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유아기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발달적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달적 문제를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사회적 참여 동기가 부족하여 혼자서 놀이하는 행동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 수줍음 유아든 사회적 무관심의 기질이 높은 유아든, 어머니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적절히 이해하고 반응하지 못할 경우, 정서조절을 포함한 발달적 예후가 부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수줍음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뚜렷이 시사한다(신미혜, 2018; 이희연, 장경은, 2015; 정세진, 신나리, 2018; Coplan et al., 2004). 즉 갈등 수줍음이 높은 유아에게는 불안 민감도를 낮추고 점진적 노출 및 숙달경험을 설계하며, 부모에게는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 지원·정서코칭·일관된 경계를 결합한 반응을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배성아, 최혜정, 2021; 신미혜, 2018; Kiel & Buss, 2011). 사회적 무관심이 높은 유아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독립성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Asendorpf & van Aken, 1994; Coplan et al., 2004). 더 나아가,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는 갈등 수줍음이나 사회적 회피 성향이 강한 유아와 달리 매력적인 사회적 제안이 주어지면 타인과 문제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Asendorpf & van Aken, 1994), 어머니의 조언과 관심 같은 간접적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Coplan et al., 2004; Coplan & Weeks, 2009).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갈등 수줍음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의 성향에 맞는 발달적 지원이 중요하겠다.

셋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침해와 응석/허용은 유아의 수줍음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걱정/보호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우선, 침해적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Eisenberg et al., 2015; Laurin, Joussemet, Tremblay, & Boivin, 2015)에 따르면, 통제 수준이 높은 침해적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자율적 결정과 문제해결 경험을 제한하여 의존성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초래하고, 이후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증대시키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Kiel과 Buss의 연구(2011) 역시 본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보호 양육척도를 개발한 정영선(2021) 역시, 침해적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과 반복적 행동 제한이 자녀의 도전 의지와 과제 지속성을 저하시켜, 내적 동기 발달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응석/허용적 양육태도 또한 과보호와 허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채경진과 유연옥(2015),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불안과 위축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노연수의 연구(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정영선(2021)은 어머니의 응석/허용을 단순히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양육태도로 보기보다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태도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를 감싼다’,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와 같이 자녀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위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기존의 과보호 양육에 대한 연구(김나희 등, 2012; 소연주, 도현심, 2001; 정의중, 2012)에서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주로 자녀를 나이보다 어린 아이로 취급하여 ‘아이가 옷 입는 것을 도와줄 때가 많다’와 같이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특성으로 본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훈육을 회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기저(박아청, 1998)가 수줍음이 많은 자녀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걱정/보호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아기 취급 행동은 유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높이고 정서 통제 능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보호 행동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선영의 연구(2012)와 일치한다. 송지은과 신나리(202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걱정/보호가 자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적 동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느린 기질의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고 제한하는 행동이 비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일지라도, 느린 기질의 유아에게는 강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유능감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아청(1998)은 자녀를 걱정하며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수한 과보호적 양육태도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걱정/보호는 자녀의 안위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유아의 정서조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1998; 정영선, 2021). 실제 본 연구의 문항에서도 ‘아이가 내 눈앞에 없으면 다칠 것 같아 걱정된다’, ‘아이가 나와 떨어질 때 불안해할까 봐 걱정된다’ 등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을 측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반면, 침해와 응석/허용은 자녀의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아이가 하는 일을 잠자코 보지 못하고 개입한다’,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은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양육태도는 다시 유아의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특히 팬텀 변수를 활용한 개별 간접효과 검증 결과, 침해와 응석/

허용은 두 수줍음 하위유형 모두에서 정서조절을 약화시키는 유의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이론적 추론이 아닌 실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된 영향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과보호적 양육태도라 할지라도 모든 하위 유형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침해적 양육태도가 보여주는 지나친 개입과 응석/허용적 양육태도가 보여주는 비일관된 행동지도가 유아의 자율적 시도와 문제해결 경험을 제한한다는 점을 연구모형 내에서 명확히 입증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경로는 이들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 발달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정서적 미성숙을 강화하는 주요 기제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유아 수줍음의 두 하위 유형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통해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를 비교 분석하여, 침해 및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갈등 수줍음은 직접·간접 경로를 모두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약화시키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구조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하위 유형의 차별적 경로는, 갈등 수줍음이 정서적 긴장, 억제, 부정적 정서 표현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정서조절의 저하로 직결되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정서적 반응성이 낮아 직접적 영향은 미약하되, 어머니의 과보호적 개입이 증가할 때 비로소 정서조절이 약화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수줍음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유형별 맞춤 개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뒷받침한다(권연희, 2014; 김지윤 등, 2008; Kiel & Buss, 2011).

실천적으로는, 부모 교육에서 침해 및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감소시키고 자율성 지원·정서코

칭·일관된 경계 설정을 강화하는 모듈을 핵심 구성으로 삼되, 걱정/보호는 불안하고 민감성이 높은 유아에 한해 정서적 안전망으로 제한·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배성아, 최혜정, 2021; 송지은, 신나리, 2023; 신미혜, 2018; 이선영, 2012; Asendorpf & van Aken, 1994). 또한 교실에서는 갈등 수줍음이 높은 유아에게 점진적 노출과 성공 경험 축적이 가능한 과제 구조를, 사회적 무관심이 높은 유아에게는 흥미 기반 선택과 강압적이지 않은 또래 협력상황을 제공하는 등 맥락 맞춤형 환경설계가 요구된다(이희연, 장경은, 2015; 정세진, 신나리, 2018; Coplan et al., 200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확보하였다. 온라인 패널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활용 능력, 응답 성향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이 과대 표집되거나 과소 표집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참여 방식의 특성상 연구 주제에 관심이 높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어 표본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단일 정보원인 어머니의 평정에 의한 자기 보고식 설문이 이루어져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아버지, 유아 관찰, 과제 기반 평정을 결합한 다차원적인 설계를 통해 경로의 유의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로분석에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형제 유무뿐만 아니라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부모의 심리상태(스트레스·불안), 사회경제적 요인 및 문화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구조모형에 통합해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발생 요인과 개입 민감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양육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공하는 각기 다른 자각들을 모두 얻은 자녀는 지적, 사회적 발달 등을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룬다는 사실들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 육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의 영향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수줍음 유형의 차이와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기능적 분화를 동시에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조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 교육·교실설계·상담 개입의 정밀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한국 문화의 맥락에 적합한 과보호 개념화와 측정 틀을 활용함으로써, 문화 정합적(parenting culture-fit) 개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권석만, 이지영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권연희 (2012).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교사 관계가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341-363.
- 권연희 (2013). 유아의 수줍음 및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또래괴롭힘 피해 간 관계에 대한 거부적 양육행동의 중재 및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87-307.
- 권연희 (2014). 남녀 유아의 수줍음과 또래괴롭힘 피해 간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25-45.
<https://doi.org/10.14698/jkce.2014.10.5.025>
- 김근영, 윤진 (1995). 수줍음과 대인관계 변인간의 상호관련성: 사회적 기술 및 동기 요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1), 90-99.
-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51-163.
<https://doi.org/10.7466/JKHMA.2012.30.3.151>
- 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3).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4), 85-100.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수경 (2008). 아동의 수줍음이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필연 (2010).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연수 (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가현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유나, 도현심 (2006). 유아기 아동을 위한 수줍음 극복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7(5), 109-122.
- 박진성 (201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회지*, 16(5), 253-272.
- 배성아, 최혜정 (202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행동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1-20.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1>
-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수줍음 및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의 관계. *가정과삶의질학회*, 24(5), 239-249.
- 소연주, 도현심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11), 209-222.
- 손수아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은, 신나리 (2023). 유아의 유능감이 숙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조절효과: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9(2), 21-42.
<https://doi.org/10.14698/jkce.2023.19.02.021>
- 신미혜 (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안의정 (2015).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유아의 부모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203-225.
- 양명재, 방희정 (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 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위지희, 채규만 (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45-970.
<https://doi.org/10.15842/kjcp.2015.34.4.005>
- 유재용 (2015).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7(3), 95-118.
<https://doi.org/10.15409/riece.2015.17.2.95>
- 윤성연, 정경미 (201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수준과 자녀의 도덕성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07-328.
- 이강이 (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55-463.
<https://doi.org/10.5934/KJHE.2007.16.3.455>
- 이선경 (2014).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고찰-정서조절을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 4(2), 79-97.
- 이선영 (2012).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정 (2016).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173-203.
- 이영신 (2016). 아동의 또래애착과 수줍음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 13, 1-18.
- 이태완, 이지연, 김은석 (2018).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이 아동기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4), 247-275.
<https://doi.org/10.18612/cnujes.2018.39.4.247>
- 이희연, 장경은 (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0(1), 5-34.
<https://doi.org/10.16978/ecce.2015.10.1.001>
- 장수현 (201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유형과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 차이.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진, 신나리 (2018).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 기질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5(4), 155-174.
<https://doi.org/10.15284/kjhd.2018.25.4.155>
- 정영선 (202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 불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5), 641-653.
<https://doi.org/10.5723/kjcs.2021.42.5.641>
- 정영선, 박경자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42(3), 359-370.
<https://doi.org/10.5723/kjcs.2021.42.3.359>
- 정은미, 김소향 (2016).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21-145.
<https://doi.org/10.22155/JFECE.23.3.121.145>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4), 255-278.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4.012>
- 정해정 (2011). 신체접촉 중심 놀이 활동이 수줍음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영 (201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 요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진, 유연옥 (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9-34.
- 최미숙, 김미숙 (2005).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간의 관계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153-172.
- 최정은, 이소연 (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조절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다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151-171.
<https://doi.org/10.33770/JEBD.33.3.8>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Stranger versus peer group inhibition and test intelligence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or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6), 1786-1798.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4.tb00849.x>
- Buss, K. A., Zhou, A. M., & Trainer, A. (2021). Bidirectional effects of toddler temperament and maternal overprotection on maternal and child anxiety symptoms across preschool. *Depression & Anxiety*, 38(12), 1201-1210.
<https://doi.org/10.1002/da.23199>
- Chronis-Tuscano, A., Danko, C. M., Rubin, K. H., Coplan, R. J., & Novick, D. R. (2018).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on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at risk for social anxiet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7(4), 655-667.
<https://doi.org/10.1080/15374416.2018.1426006>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73>.
- Coplan, R. J., Ooi, L. L., Rose-Krasnor, L., & Nocita, G. (2014). 'I want to play alon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self-reported preference for solitary play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3), 229-238.
<https://doi.org/10.1002/icd.1854>
- Coplan, R. J., Ooi, L. L., Xiao, B., & Rose-Krasnor, L. (2018).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A first look at social avoidance. *Social Development*, 27(1), 125-139.
<https://doi.org/10.1111/sode.12258>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https://doi.org/10.1037/0012-1649.40.2.244>
- Coplan, R. J., Reichel, M., & Rowan, K. (2009).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A focus on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241-246.
<https://doi.org/10.1016/j.paid.2008.09.013>
- Coplan, R. J., & Weeks, M. (2009). Shy and soft-spoken: Shyness, pragmatic language,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8(3), 238-254.
<https://doi.org/10.1002/icd.622>
- Eisenberg, N., Taylor, Z. E., Widaman, K. F., Spinrad, T. L. (2015). Externalizing symptoms, effortful control, and intrusive parenting: A test of bidirectional longitudinal relations dur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 953-968.
<https://doi.org/10.1017/S095457941500062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W. W. Norton, New York, NY, USA.
- Hipson, W. E., Coplan, R. J., & Séguin, D. G. (2019). Active emotion regulation mediates links between shyness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Social Development*, 28(4), 893-907.
<https://doi.org/10.1111/sode.12372>
- Hyson, M. (2004).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Building an emotion-centered curriculum*. Teachers College Press, New York, NY.
- Kagan, J., & Arcus, D. (1994). Reactivity in infan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42-345.
<https://doi.org/10.1037/0012-1649.30.3.342>
- Kiel, E. J., & Buss, K. A. (2011). Prospective relations among fearful temperament, protective parenting, and social withdrawal: The role of maternal accuracy in a moderated mediation framewor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7), 953-966.
<https://doi.org/10.1007/s10802-011-9516-4>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1), 236-254.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868.x>
- Laurin, J. C., Joussemet, M., Tremblay, R. E., Boivin, M. (2015). Early forms of controlling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anxie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279-3292.
<https://doi.org/10.1007/s10826-015-0131-9>
- Levy, D. M. (1943). *Maternal overprote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McShane, K. E., & Hastings, P. D. (2009). The new friends vignettes: Measur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at confers risk for anxious adjustment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6), 481-495.
<https://doi.org/10.1177/0165025409103874>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4907), 933-938.
<https://doi.org/10.1126/science.2658056>
- Parker, G. (1983).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 risk factor delineate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9), 956-960.
<https://doi.org/10.1001/archpsyc.1983.01790080038005>
- Penela, E. C., Walker, O. L., Degnan, K. A., Fox, N. A., & Henderson, H. A. (2015). Early behavioral inhibition and emotion regulation: Pathways toward soci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6(4), 1227-1240.
<https://doi.org/10.1111/cdev.12384>
- Selman, R. L., & Demorest, A. 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1), 288-304.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704_2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4(2), 67-80.
<https://doi.org/10.1007/BF02367260>
- Thomasgard, M., Metz, W. P., Edelbrock, C., & Shonkoff, J. P. (1995). Parent-child relationship disorders. Part I. Parental over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 Protection Scale.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6(4), 244-250.
<https://doi.org/10.1097/00004703-199508000-00006>
- Tiede, M. A. (2020). *The impact of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helicopter parenting on millennials' emotion regulation: A gendered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ood, G. S. (2006). *Revolutionary characters: What made the founders different*. Penguin Press, New York, NY.
- Zimbardo, P. G., Pilkonis, P., & Norwood, R. (1975). The social disease called shyness. *Psychology Today*, 8(3), 69-72.